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카길애그리퓨리나(CargillAgriPurina,Inc : CAPI, 사장 이보균)는 1968년 국내 최초로 현대식 대규모의 사료공장을 건설하면서 한국사료공업의 효시를 이루었던 퓨리나를 인수한 세계적인 농업식품기업인 카길 코퍼레이션이 모기업이다. 국내에는 송탄, 천안, 군산, 정읍, 김해에 5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국내 최대 사료 회사답게 최첨단 시설로 연간 150만 톤의 가축사료를 안전하게 생산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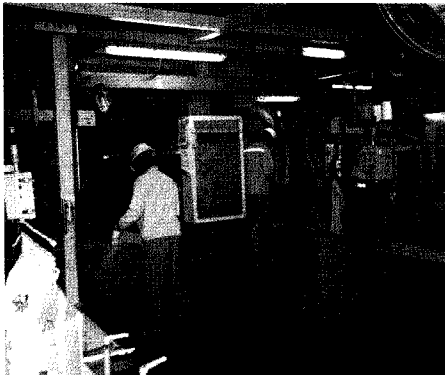
CAPI의 안전정책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카길애그리퓨리나를 찾아갔다.

철저한 안전/ 완전한 물입/ 지속적인 성장

CAPI는 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원료입고-저장-분쇄-배합-가공-출하 공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공정 안에는 추락, 협착, 지게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곳의 안전관리 활동은 이들 재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먼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추락방지 장치를 (Fall Protection) 설치했으며, 사료운반차량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개발·장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또 기계작업에서는 Lock-out, Tag-out을 실시하면서 협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게차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안전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문에는 지게차의 접근을 경고하는 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게차와 작업자가 공동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단독 작업이 가능하도록 토터백과 지게차 보조 포크를 개발한 바 있다.



안전시스템의 선진화

이곳은 지난 2001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사내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중 안전등급제 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직원들을 안전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전 직원들의 안전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승인을 받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한구역 출입 허가, 크레인 작업허가, 절단용접작업 허가, 주요안전장치 우회허가, 액상 가스라인 분리허가, 전기장치 변경허가가 그 예다.

안전점검 및 순찰활동도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자의 일상적인 점검 외에도 공장 스태프들이 매일 현장을 순찰하면서 위험요인을 세세히 짚어내고 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면서 작업장의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조건을 사전에 차단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은 안전규칙, 안전수첩, 아차사레 관찰카드 등 매뉴얼에 의한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안전캠페인, 공장 TPM 혁신활동, 분기별 품질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안전교육도 특성화되어 있다. 월 2시간씩 전 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전세계적인 Monthly Safety Repor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시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Critical Task(중대 안전 작업절차), Safety Work Practices(안전작업절차), Safety Rules(안전규칙)에 대한 교육이다. 이들 교육 시에는 3Step 교육방법(1Step : 숙지, 2Step : 시범, 3Step : 실시)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몸에 안전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바탕으로 최고 안전현장 구현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전세계적으로 안전현장을 표방한다. 사업장내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미국 본사 사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재해조사를 실시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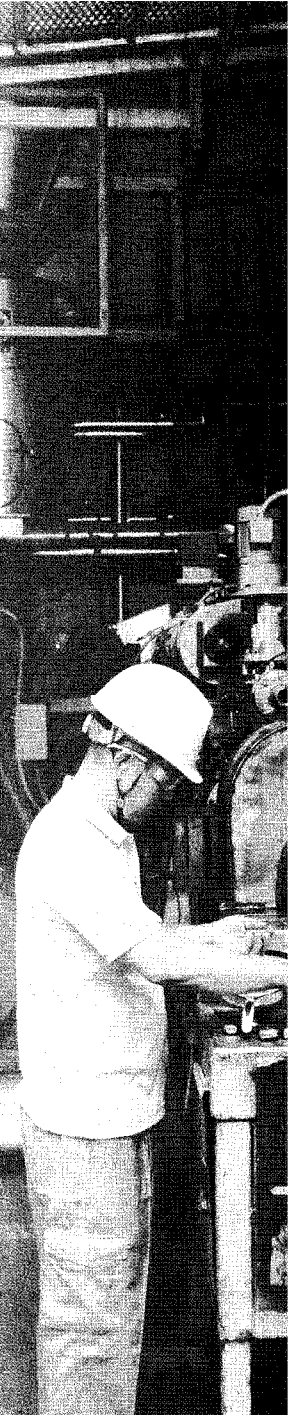
이러한 안전신념은 우리나라 공장의 최고경영진들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공장 최고경영진들은 주기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격려를 해주고 있다. 또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 활동이 아무 막힘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카길동물영양사업부의 전 세계 180여 개 공장 중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국내 5개 공장은 월드클래스공장 및 최우수사업장(스피콜라상)을 수상했는데, 바로 이러한 경영진들의 안전에 대한 활동과 신념이 수상의 큰 원동력이 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한국에 있는 공장 중 3개 공장(군산, 김해, 정읍)은 2011년 3월 무재해 10년을 달성한 가운데, 이곳 군산공장은 1월11일에 무재해 10년, 6월11일에 무재해 10배수(3,800일)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도 안전에서 만큼은 배고프다고 말한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무재해 20배수와 30배수를 넘겠다는 것이 이곳의 궁극적인 목표다.

세계적인 선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사료공업의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설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여 태 현 전무

안전은 약속입니다

안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은 유연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결부하면 모든 곳에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는 '큰 사고(유연한 생각)'를 갖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습관, 인내, 확인, 의무, 안전 등 5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안전은 몸에 익혀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결코 안전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셋째, 안전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전하십시오. 근로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